

소비자단체에 출판물고발 최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정광모)가 최근 발표한 '93년 소비자 고발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국 44개 소비자 고발센터가 접수한 총 17만여건 중 출판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물에 대한 고발은 전년 대비 22.1% 증가한 2만9986건(17.2%)으로 92년에 이어 여전히 소비자고발 1위를 차지했다. 출판물에 대한 소비자고발은 주로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문제로 집중, 해약이나 반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BNK, 출판정보통신망 개통

한국출판정보통신망(BNK)이 최근 출판종합정보통신망을 개통했다.

'북네트'라는 이름의 이 통신망은 각종 서적정보는 물론 출판사, 서점, 도서관 등 출판관련업체와 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급하고 있다. 이 통신망을 이용하려면 컴퓨터와 모뎀, 통신프로그램을 갖추고 '북네트'의 접속용 대표전화(596-0345)에 연결하면 된다. 통신료는 앞으로 3개월간 무료다.

「팔만대장경해제」 복제출판권분쟁

지난해 가을 「리조실록」의 복제출판을 놓고 일어난 두 출판사간의 송사를 계기로 관심을 모았던 북한출판물의 저작권 보호문제가 「팔만대장경 해제」의 복제출판을 계기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분쟁 당사자는 「리조실록」 때와 마찬가지로 여강출판사와 이름출판사. 북한쪽으로부터 출판권



출판협회는 지난 2월 22일 출판협회 정기총회를 갖고 차기회장을 선출했다.

출협 회장에 김낙준씨 당선

정기총회서 직선제 실시 윤형두후보 제쳐

대한출판문화협회 제41대 회장에 김낙준 현회장이 당선됐다.

지난 2월 22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국제컨벤션에서 열린 제47차 출판협회 정기총회 차기회장 선거에서 김낙준씨는 모두 527표를 얻어 윤형두 후보(범우사 대표)를 103표 차로 누르고 임기 2년의 새 회장에 선출됐다. 이로써 지난 92년 2월 권병일 회장의 뒤를 이어 40대 회장으로 뽑혔던 김회장은 앞으로 2년 더 협회를 이끌게 됐다.

평균 6백명 정도에 머물던 참석자들도 이번 선거에는 957개사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같은 참석율은 1947년 협회 창립 이래 최초의 직선 회장 선출이라는 의의와 두 후보가 단행본 대 전집류라는 출판계 구도

를 반영하고 있어서 회원사들이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책의해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책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감한 김낙준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독서새물결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며, 도서관 정보센터 설립, ISBN 바코드 무료제작 서비스, 납본보상금의 현실화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기초하에 김낙준 회장은 "올해 독서진흥법을 제도화시키고 향후 다가올 출판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1993년도 출협의 사업보고와 함께 올해의 사업계획안이 확정됐다.

설계계약을 위임받은 중국의 대리인(장성국계영시광고유한공사)과 「팔만대장경 해제」의 수입계약과 판권계약을 맺고, 1차분 2천질을 구

매할 계획인 여강출판사는 이름출판사에서 이 책을 복제해 판매할 움직임을 보이자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출협 회원사 급증의 의미

출판협회의 회원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별개의 행동을 하던 출판사들이 출판협회라는 동아리로 모여들고 있는 형상을 보는 듯하다. 출판시장 개방 등 산재한 문제가 앞길을 막고 있는 이즈음 출협을 중심으로 출판사들이 힘을 모으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출협의 회원사는 지난해 말 1032개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1월에 45개사, 2월에는 202개사의 출판사가 신규가입함으로써 출협은 전대미문의 회원사 수 증가율을 이룩했다. 이로써 2월 23일 현재 1275개사가 회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급격한 회원사의 증가는 아무리 봐도 기형적이다. 출협의 한 달 평균회원 가입사 수는 15~20개사 정도. 적을 때는 7~8개사 정도가 가입을 한다는 수치로 보더라도 올해 2월의 신규가입사는 너무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봐도 그렇다. 지난 2월에는 단지 2개사만이 신규가입신청을 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지난해 2월에 비해 1백배가 넘는 출판사가 갑작스럽게 출협의 회원사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가입비 30만원씩을 선뜻 내놓으면서 말이다.

출협도 물론 출판사들을 상대로 회원사가 되도록 권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노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2월의 가입회원사 수는 너무 많다는 느낌이다.

공교롭게도 출협은 지난 2월 22일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해 회장을 선출했다. 그날의 행사는 정작 출협의 47차 정기총회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지만,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차기 회장에 입후보한 두 인물에 쏠려 있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총회는, 그 장소가 넓은 강당임에도 불구하고 1천여명이 넘어보이는 사람들로 발뚎을 뜬 채 성황을 이루었다. 총회의 안전처리가 끝나고, 회장선출 투표를 마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 원로 출판인은 "총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적도 없었다"고 말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2월의 급격한 회원사 수 증가와 출협회장선거가 딱히 관계가 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이라는 생각이다. 이번 출협회장 선거를 치르기 이전에 각 후보를 근원지로 한 여러 소문도 많았다. 과일선거라는 평판도 없지 않았다. 이제 그 분위기는 차츰 가라앉아 다시금 평온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2월에 202개사가 신규회원으로 등록했다는 기록은 출협이 존재하는 한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선거와 회원사 수의 증가가 아무관계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이성수 기자

전화 한 통화가 뜻밖의 결과를 만든다?

출판을 하고자 합니까? 좋은 원고는 있는데 책으로 출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책으로 위를 만든 삶의 경험이나 자료는 있는데 집필을 하실 수 없어 망설이시는 않으십니까? 더욱이 문화적으로는 이 땅에 꼭 필요한 도서가 될 터인데 요즘 같은 출판불황 속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판하겠다는 곳을 만나지 못했거나, 그렇다고 직접 출판을 하자니 예상되는 시간과 경비의 손실을 걱정하시진 않으십니까?

이제부터는 저희와 상담해 주십시오. 기획에서부터 제작 영입에 이르기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접출판의 효용성을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가 뜻밖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탁전문출판사 **출판미디어** TEL : (02)730-2516 FAX : (02)738-2836

■ BOOK COVER DESIGN의 모든것을 창조적인 감각으로 해결해 드리는 디자인센스!
—프리랜서 정혜연(작업실 TEL/364-9157, 호출/012-246-3949)

出版企劃翻譯

(중국도서기획 번역전문)

《全分野 · 全種別》

한중출판정보학회

· 新著原書 · 뉴프로젝트 多量保有

代表 黃秉國

(前 숙대교수 · 출판사 기획실장 · 중국학 전공)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0단지 31동

전화 : 645-7052



북디자인 · 광고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심볼마크 · 로고서체 디자인
브로셔 디자인

전화(02)953-0621